



체 코

사회민주당 총선 승리, 그러나 정국 불안정 우려

7월 12일 하벨(Vaclav Havel) 체코 대통령은 6월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CSSD)의 슈피들라(Vladimir Spidla) 총재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슈피들라 신임 총리는 역시 사회민주당 소속의 제만(Milos Zeman) 전임 총리로부터 총리직을 승계하여 새 내각을 구성하고, 15일부터 집무를 시작했다. 총 17명의 각료 중 11명은 사회민주당에서, 나머지 6명은 연정 파트너인 중도연합에서 선출되었다.

지난 6월 14~15일 실시된 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은 전체 200석 중 70석을 차지하여 예상보다 높은 30.2%의 득표율을 올리며 제1당의 지위를 고수하였으나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4년 전인 1998년의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후 연정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회민주당 정부는 이번 연정 구성 직후에도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다시금 애

쓰고 있다.

당초의 예상대로, 사회민주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정책노선 차이가 비교적 적은 중도연합을 연정 파트너로 선택했다. 중도우파 자유연맹, 중도좌파 기독교민주연맹(KDU) 및 체코슬로바키아 인민당(CSL) 등 중도 성향의 소수정당들로 구성된 중도연합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일삼는 일부 의원들을 출당시키는 강수를 두며 중산층 유권자들을 공략하였으나, 총선 결과 4년 전보다 8석이 줄어든 3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의회내에서 제4당으로 내려앉은 상태이다. 따라서 중도연합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회민주당과의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중도연합의 연정은 합계 101석으로 의회 과반수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 약진

한편, 민주화 이후에도 개혁을 거부하고

〈표〉 체코 총선(2002. 6) 결과 - 각 정당별 확보 의석 및 득표율

정 당	의석 수(1998)	의석 수(2002)	득표율(2002)
사회민주당	74	70	30.2%
시민민주당	63	58	24.5%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	24	41	18.5%
중도연합	39	31	14.3%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ress reports.

공산주의 노선을 고수해온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KCSM)은 18.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보다 무려 17석이 늘어난 41석을 확보, 의회내에서 제3당으로 부상하며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의 이 같은 약진에는 이번 총선의 저조한 투표율¹⁾도 일조한 것이 사실이나, 그보다는 공산당이 과거 공산주의 정권 시대의 억압적 통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젊은 세대에게 최근 각종 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주류 정당들에 비해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에서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은 그간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도입과 EU 가입에 모두 반대하는 극단적 노선으로 주류 정당들로부터 배척받아 왔기 때문에, EU 가입을 적극 추진중인 사회민주당 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슈피들라 총리는 필요하다면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기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에 고무된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이 극단적인 좌파적 정책노선을 추진할 경우, 예산적자의 해소

및 EU 가입을 위한 최종 협상의 마무리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사회민주당 정부와의 협력은 어려운 전망이다.

시민민주당과는 대립관계로 전환

사회민주당 정부가 지난 4년간 의회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석(74석)만으로 정국을 운영해올 수 있었던 데는 시민민주당(ODS)과의 이른바 제휴협정(coalition agreement)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사회민주당은 이 협정을 통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시민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각료 배분 및 국영기업 대표이사 선임시 시민민주당 인사를 일부 기용하는 대가로 의회에서 시민민주당의 지원을 얻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협력관계는 총선을 거치면서 점차 유명무실해진데다, 슈피들라 총리가 이러한 관계를 더 이상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사실상 양당의 협력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한때 총리를 지낸 바 있는 시민민주당의 클라우스(Vaclav Klaus) 총재와 슈피들라 총리 사이의 개인적인 적대관계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 8개 의석을 잃으며 24.5%

1) 1998년 총선의 투표율은 74%에 달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58%로 낮아짐. 한편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 지지자들은 타 정당의 지지자들에 비해 투표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의 득표율에 그친 시민민주당으로서는 여당에 대한 의회내 협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슈피들라 총리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도 무산된 동시에 1992년 이후 10년만에 사회민주당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스 당수가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하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적 야망이 이번 총선에서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온건한 이미지를 털어내고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좌파적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연정의 취약성 부각

슈피들라 총리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온 경제 구조조정 및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사회복지지출의 확대 등 전통적인 좌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지출 확대의 경우 필연적으로 세율 인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세율 인하와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중도연합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양자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만약 갈등이 심화될 경우,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자유연맹이 중도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현재 자유연맹은 사회민주당의 좌파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연정 구성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사회민주당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연맹이 연정에서 탈퇴할 경우, 사회민주당은 시민민주당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의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EU 가입을 반대하는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으로 인해 향후 정책 추진에 심각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사회민주당은 금번 연정 구성을 위한 논의에서 경제정책 운용의 방향 설정에 대한 대부분의 요구를 관철시켰는데, 이는 새 정부가 우려할만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계속 짊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사회민주당 정부는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4.9%에서 5.4% 사이의 수준으로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재정적자 요구수준인 GDP의 3% 미만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결국 2006년까지도 유로화 도입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민주당 정부는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와 유로화 도입 연기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吳 昊 駟】